

결 정

2018 - 3079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
2.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
3.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

주 문

중앙일보(news.joins.com) 2018년 1월 5일자 「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학생 '175명」 제목의 기사, 서울신문(seoul.co.kr) 1월 5일자 「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학생 175명」 제목의 기사, 서울경제(sedaily.com) 1월 5일자 「서울대 수시 불고도 안 간 수험생 175명...작년보다 25%↓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'주의' 조처한다.

이 유

1. 중앙일보, 서울신문,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중앙일보

중앙일보	연합뉴스
서울대 수시 합격하고도 등록 안한 학생 '175명'	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학생 175명...작년보다 25%↓
기사입력 2018-01-05 16:08	기사 입력 2018-01-05 14:52
정은혜 기자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올해는 175명으로 추정된다.	(서울=연합뉴스) 이재영 기자 =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올해 175명으로 나타났다. 이들 대부분은 자연계열 수험생으로 다른 대학 의대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입시업계는 추정했다.

<p>5일 서울대와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75명으로 2017학년도 234명보다는 25.2%(59명) 줄었다.</p> <p>서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계열에 따라 나누면 자연계열이 162명, 인문계열이 13명으로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</p> <p>과별로 보면 수의예과가 13명으로 최다였고 이어 치의학과가 11명이었다. 관련 산업이 침체한 조선해양공학과와 응용생물화학부에서도 각각 10명씩 미등록 인원이 발생했다.</p> <p>수시 미등록 인원만큼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 정원은 68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됐다.</p> <p>연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은 297명으로 지난 학년도보다 15.4%(54명) 감소했고 고려대는 190명으로 33.8%(48명) 늘었다.</p> <p>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"서울대 수시 미등록자는 대체로 타 대학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연대와 고대 미등록자는 의대나 서울대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"고 말했다.</p> <p>정은혜 기자 jeong.eunhye1@joongang.co.kr 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262047</p>	<p>5일 서울대와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75명이었다. 2017학년도 234명보다는 25.2%(59명) 줄었다.</p> <p>서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계열에 따라 나누면 자연계열이 162명, 인문계열이 13명으로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</p> <p>과별로 보면 수의예과가 13명으로 최다였고 이어 치의학과가 11명이었다. 관련 산업이 침체한 조선해양공학과와 응용생물화학부에서도 각각 10명씩 미등록 인원이 발생했다.</p> <p>수시 미등록 인원만큼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 정원은 68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됐다.</p> <p>연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은 297명으로 지난 학년도보다 15.4%(54명) 감소했고 고려대는 190명으로 33.8%(48명) 늘었다.</p> <p>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"서울대 수시 미등록자는 대체로 타 대학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연대와 고대 미등록자는 의대나 서울대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"고 말했다.</p> <p>jylee24@yna.co.kr 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1/05/0200000000AKR2018010510250004.HTML?input=1195m</p>
---	---

2)서울신문

서울신문	연합뉴스
<p>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학생 175명</p> <p>기사입력 2018-01-05 22:32</p>	<p>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학생 175명...작년보다 25%↓</p> <p>기사 입력 2018-01-05 14:52</p>

<p>박기석 기자 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175명으로 나타났다. 다른 대학 의대를 선택한 자연계열 수험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입시업계는 추정했다.</p> <p>5일 서울대와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75명이었다. 전년도 234명보다는 25.2%(59명) 줄었다.</p> <p>서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계열에 따라 나누면 자연계열이 162명, 인문계열이 13명으로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</p> <p>과별로는 수의예과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, 치의학과가 11명이었다. 조선해양공학과와 응용생물화학부에서도 10명씩 미등록 인원이 발생했다.</p> <p>수시 미등록 인원만큼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 정원은 68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됐다.</p> <p>연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은 297명으로 전년도보다 15.4%(54명) 감소했고, 고려대는 190명으로 33.8%(48명) 늘었다.</p> <p>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"서울대 수시 미등록자는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, 연대와 고대 미등록자는 의대나 서울대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된다"고 말했다.</p> <p>박기석 기자 kisukpark@seoul.co.kr</p> <p>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80106009014&wlog_tag3=nave_r</p>	<p>(서울=연합뉴스) 이재영 기자 =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올해 175명으로 나타났다. 이들 대부분은 자연계열 수험생으로 다른 대학 의대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입시업계는 추정했다.</p> <p>5일 서울대와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75명이었다. 2017학년도 234명보다는 25.2%(59명) 줄었다.</p> <p>서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계열에 따라 나누면 자연계열이 162명, 인문계열이 13명으로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</p> <p>과별로 보면 수의예과가 13명으로 최다였고 이어 치의학과가 11명이었다. 관련 산업이 침체한 조선해양공학과와 응용생물화학부에서도 각각 10명씩 미등록 인원이 발생했다.</p> <p>수시 미등록 인원만큼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 정원은 68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됐다.</p> <p>연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은 297명으로 지난 학년도보다 15.4%(54명) 감소했고 고려대는 190명으로 33.8%(48명) 늘었다.</p> <p>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"서울대 수시 미등록자는 대체로 타 대학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연대와 고대 미등록자는 의대나 서울대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"고 말했다.</p> <p>jylee24@yna.co.kr</p> <p>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1/05/0200000000AKR2018010510250004.HTML?input=1195m</p>
--	---

3)서울경제

서울경제	연합뉴스
<p>서울대 수시 불고도 안 간 수험생 175명… 작년보다 25%↓</p>	<p>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학생 175 명…작년보다 25%↓</p>
<p>기사입력 2018-01-05 15:10 김경훈 기자</p>	<p>기사 입력 2018-01-05 14:52 (서울=연합뉴스) 이재영 기자 =</p>
<p>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 은 학생이 175명으로 나타났다. 대부분 자연계열 수험생으로 다른 대학 의 대로 진학했을 것으로 입시업계는 분석했다.</p>	<p>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 은 학생이 올해 175명으로 나타났다. 이들 대부분은 자연계열 수험생으로 다른 대학 의대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입시업계는 추정했다.</p>
<p>5일 서울대와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 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75명이었 다. 2017학년도 234명보다는 25.2%(59명) 줄었다.</p>	<p>5일 서울대와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 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75명이었 다. 2017학년도 234명보다는 25.2%(59명) 줄었다.</p>
<p>서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계열에 따라 나 누면 자연계열이 162명, 인문계열이 13명 으로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</p>	<p>서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계열에 따라 나 누면 자연계열이 162명, 인문계열이 13명 으로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</p>
<p>과별로 보면 수의예과가 13명으로 가장 많 았고, 치의학과가 11명이었다. 관련 산업이 침체한 조선해양공학과와 응용생물화학부에 서도 각각 10명씩 미등록 인원이 나왔다.</p>	<p>과별로 보면 수의예과가 13명으로 최다였고 이어 치의학과가 11명이었다. 관련 산업이 침체한 조선해양공학과와 응용생물화학부에 서도 각각 10명씩 미등록 인원이 발생했다.</p>
<p>수시 미등록 인원만큼 정시모집 선발 인원 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 정원은 68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됐다.</p>	<p>수시 미등록 인원만큼 정시모집 선발 인원 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 정원은 68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됐다.</p>
<p>연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은 297명으로 지 난 학년도보다 15.4%(54명) 감소했고 고려 대는 190명으로 33.8%(48명) 늘었다.</p>	<p>연세대 수시 미등록 인원은 297명으로 지 난 학년도보다 15.4%(54명) 감소했고 고려 대는 190명으로 33.8%(48명) 늘었다.</p>
<p>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“서울대 수시 미등록자는 대체로 타 대학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연대와 고대 미등록자는 의</p>	<p>오종은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"서울 대 수시 미등록자는 대체로 타 대학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연대와 고대 미등록</p>

대나 서울대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"고 설명했다. /김경훈기자 styxx@sedaily.com	지는 의대나 서울대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"고 말했다. jylee24@yna.co.kr
http://www.sedaily.com/NewsView/1RUB65RG6D	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1/05/0200000000AKR20180105102500004.HTML?input=1195m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2018년 1월 5일 14시 52분 연합뉴스가 송고한 「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학생 175명…작년보다 25%↓」 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.


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,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등 현	이등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
박 현 갑 

박 미 경 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.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.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,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.